

4. 광수와 나

“19번, 「초혼」 외워 봐.”

“19번 윤유정. 일어나.”

국어 보충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여다보며 내 이름을 부른다. 아이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나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진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우리 학교 근처에는 해병대 부대가 있어 몇 년 전부터 방과 후에 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과목은 보강을 해 준다. 무료인 데다 성적에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으니 나쁠 건 없지만 이번에 새로 온 국어 선생님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든다. 자기는 명문대를 다니다 군대에 왔다고 걸핏하면 자랑이고, 수업도 완

전 자기 맘대로다. 시를 50편씩이나 출력해 주더니 그걸 외우라고 한다. 고등학교 가면 문학 시간에 시 공부가 가장 어렵다며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시를 집중적으로 보강해 주겠다고. 다 좋다. 문제는 선생님이 아무나 지목하면 일어나 외운 시를 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용케 잘 피해 갔는데 결국 오늘 내 이름이 불렸다.

“19번 윤유정, 안 왔어?”

마지못해 일어났다.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옆머리는 거의 삭발이고, 윗머리만 솔뚜껑처럼 까맣게 남긴 해병대머리는 웬지 더 무섭고 딱딱하게 보인다. 그래서 군인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을 때면 나는 일부러 눈을 안 맞추려 애쓰는데 오늘은 고개를 꺾듯이 세워 선생님을 올려다보았다. 반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선생님이 내 입술 위의 흉터를 보고 뭔가 눈치채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이 군인 선생님은 둔하기 짝이 없다.

“못 외웠어?”

순간 생각한다. 차라리 못 외웠다고 해 버릴까?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채근을 한다.

“못 외웠으면 읽기라도 해.”

우리 반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 아이들은 내가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말을 심하게 더듬고 발음이 꼬인다는 걸 알고 있다. 가슴이 쿵쥔거리고 손이 달달 떨렸다.

“윤유정, 어서.”

나는 눈을 딱 감았다. 그리고 외운 시를 읊기 시작했다.

“탄탄이 부서진 이음이며, 허공중에 헤어진 이음이며, 불어도 주인 없는 이음이며…….”

아이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지는 거다. 작은아빠가 늘 말했다. 어떤 상황이 오든 먼저 물려서지 말라고. 군인 선생님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얼굴이 뜨거워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 긴장할수록 왜 이렇게 허가 꼬이는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되던 발음까지도 심하게 꼬인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시를 다 외웠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았다. 군인 선생님의 얼굴이 나보다 더 빨개져 있었다.

“차, 참 잘했어요. 퍼, 퍼펙트.”

아이들 몇이 따라 손뼉을 치다 멈췄다. 퍼펙트라니. 끝까지 남의 입장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선생님이다. 자리에 앉은 뒤부터는 수업이 어떻게 이어졌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나는 언청이다. 의학 용어로는 구순 구개열이라고 한단다. 나는 입술이 코 바로 밑까지 갈라지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채로 태어났다. 그런데 내가 언청이로 태어났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엄마가 성병을 앓거나 술 담배를 해서 그렇다며 속덕거렸다. 그런 소문이 돌 만했던 것은,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 공장 생활을 할

때 만난 외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임신을 했다고 덜컥 결혼부터 시키는 할머니더러 신중하지 못하다며 입방아를 찼었다지만, 할머니는 순하고 참한 엄마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마음 못 잡고 자꾸만 밖으로 도는 큰아들을 잡아 주길 바랐단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낳은 엄마를 감싸 주기는 커녕 마을 사람들의 뜬소문에 솔깃해서는 엄마를 닦달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구순 구개열이 생기는 건 꼭 성병 때문이 아니라 임신 초기에 무심코 먹은 감기약이나 영양실조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갔다.

몇 날 며칠을 술만 마시던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한 달 만에 엄마도 떠나 버렸다. 입천장과 입술이 갈라진 탓에 어차피 엄마 젖을 빨 수는 없었지만 엄마 품마저 잃어버린 나는 할머니 품에서 특수 젓꼭지가 달린 젖병으로 분유를 먹어야 했다. 그리고 백일이 지나 입천장 수술을 했다. 의사는 돌 무렵에는 입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나를 병원에 데려갈 여력이 없었다. 두 번째 수술을 받은 건 만 두 살이 다 되어서였다. 지방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한 협력 업체에서 일하던 작은아빠가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를 당해 집에 와 있던 때였다. 의사는 입술 수술 시기를 놓쳐 흉터가 깊게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린 작은아빠는 그 뒤 일 년 만에 복직이 되어 되돌아간 일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작은아빠 말로는 내가 눈

에 삼삼해 일이 손에 안 잡혔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내가 작은아빠와 할머니한테 들은, 내 기억에 없는 나의 과거다.

노동자에서 농부가 된 작은아빠는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일 년에 한 번씩은 나를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를 꼭 데리고 다녔다.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도 집에 돌아오면 한글을 가르쳐 주고, 읍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도 보내 주었다. 아버지는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일 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지만 내 기억에는 없다. 어쨌든 그러다 어느 날인가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하던 인산리 논을 팔아서 그 돈을 들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가 의정부라는 데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온 것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의정부에 있는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있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한밤중이면 할머니 울음소리가 들렸다. 남몰래 일어나 우는 게 아니라 자면서 울었다. 할머니 울음소리는 가을밤 경경 우는 너구리 울음소리 같았다. 무서워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면 할머니는 자기가 울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린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때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내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이 다 불태워졌다.

작은아빠는 내가 여섯 살 때부터 김포에 있는 언어 치료실에 데려갔다. 이 년 동안 치료를 한 덕분에 부정확한 발음이 교정되었고

나는 친구들 앞에서 한결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작년까지 교정기를 낀 덕분에 발음이 더 좋아졌다. 그런데 지금도 긴장하거나 다급해지면 시웃이나 지웃 같은 발음이나 연음, 이중모음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렵다.

내가 스스로 언청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캠프 때였다. 거기서 만난 다른 학교 아이 중 하나가 내 입술 위의 흉터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 언청이야?”

‘언청이’라는 말을 또래 아이한테서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렸을 때 마을 어른들이 ‘언청이’라고 하는 소리를 지나가듯 몇 번 들었을 뿐이다. 그 아이는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베트남에 가서 이 년 동안 살다 와 언청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캠프 하루 만에 영어 마을에 내 소문이 돌았다. 다음 날이 되자 유치원 때부터 육 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닌 친구들까지 슬슬 나를 피했다. 심지어 지희마저도 내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내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광수가 나를 언청이라고 놀리던 목사 아들한테 주먹을 날렸다. 그 바람에 영어 마을이 발각 뒤집히고 광수와 목사 아들은 벌을 받았다. 캠프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뒤, 지희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내게 사과했다.

“나도 왕따 될까 봐 그랬어…… 미안해.”

나는 그때 친구들도 언제까지나 내 편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비로소 내 흉터에 대해서도 자각하게 되었다.

작은아빠는 그해 겨울방학에 땅을 담보로 빚을 내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에서 입술 성형 수술을 해 주고, 곧장 치과에 데려갔다. 삼 년 가까이 교정기를 끼고 불편함을 견뎌 낸 덕분에 합죽하던 윗입술과 흉터도 많이 감춰지고 이도 많이 교정되었다. 아직 콧구멍이 약간 짹짹하고 코끝도 약간 비뚤어졌지만 얼핏 봐서는 눈치 채지 못할 정도라고들 한다. 작은아빠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코 수술과 악관절 수술까지 반드시 해 주겠다고 되풀이해 말한 다. 작은아빠 덕분에 나는 친구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었지만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고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싶어진다.

학교 버스가 마을회관 앞에서 쏘다. 지희는 아직도 내 눈치를 살핀다. 내가 괜찮다고 한마디만 하면 지희가 덜 걱정할 텐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다. 짙레꽃의 달콤한 향기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느티나무 앞을 지날 때쯤 김광수가 기어코 내 성질을 건드리고 말았다.

“탄탄이 부서진 이음이어. 불어도 내가 죽을 이음이어.”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괜히 맞상대를 해서 굶어 부스럼

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어차피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 앞 삼거리까지는 얼마 안 된다. 그러나 광수는 나의 아랑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야, 유평아, 미안해. 논녀서 빼댔냐?”

“야, 김광수, 그만해. 장난도 지나치면 폭력이야.”

우주 목소리였다. 그러자 광수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이우주, 참견 마라. 폭력은 무슨, 장난이라니까.”

그 말에 지희도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야, 김광수. 넌 유정이 속상한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장난이 하고 싶냐?”

“윤지희, 너도 가만있어라. 장난 좀 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나는 재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웃으라고 그러는 거지.”

광수가 되풀이해서 장난이라고 하는 말에 불뚝성이 났다. 그때 마침 길가에 쌓아 놓은 고추 지지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고추 지지대를 집어 들고는 곧장 달려가 광수를 마구 때렸다. 우주와 지희가 달려들어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광수 팔뚝 하나쯤 부러뜨렸을지도 모르겠다.

“야, 윤유정.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것도 폭력이야.”

우주의 말에 지희가 발끈했다.

“이우주, 넌 이게 폭력으로 보여? 재가 먼저 건드렸잖아.”

“그래, 맞는 말인데 폭력에 꼭 폭력으로 맞서야 해? 광수나 윤유

정이나 똑같아지는 거지.”

우주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고추 지지대를 집어 던지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복동이가 짓기 시작하는 걸 보니 누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다.

“야, 유정이 이 기지바이. 너 나와 봐.”

아니나 다를까 광수 할머니였다. 나는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영문을 모르는 작은엄마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다.

“부모 없는 병신이라고 웬만하든 넘어가는데 우리 귀한 손자를 패다니!”

광수나 광수 할머니나 똑같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는 막상막하다.

“개가 논니니까 그러죠. 내 말 흉내 내면서 논넌단 말이에요.”

화를 참으며 변명하려니 또 발음이 꼬였다.

“사내아이가 좀 놀렸다고 기지바이가 그렇게 악감정을 먹고 등 짹을 후려치냐? 영? 우리 광수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내아가 그 정도 장난도 못 쳐? 등이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광수 할머니가 내게 호통을 치자 복동이가 으르렁거린다. 복동이 응원을 받으니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더 커졌다.

“할머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놀려도 된다는 법이 어딴어요? 그리고 내가 광수더러 공부 모타고 돈머리라고 논니고 나서 장난이라고 하면 할머이는 좋겠어요?”

“뭐라고? 저 배운 데 없는 년이 어른이 말하는데도 꼬박꼬박 말 대답이네. 우리 광수가 왜 돌머리야?”

그때 작은엄마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광수 할머니, 광수 나빠요. 유정 놀리고.”

작은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나도 광수 할머니도 깜짝 놀랐다. 그때 마침 할머니가 집으로 올라왔다.

“아이고, 우리 형님 오셨시겨?”

할머니 말에 광수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쳤다.

“아, 자네는 손녀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영?”

할머니는 호미를 현관 옆 선반에 올려놓으며 눈짓으로 무슨 일 이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다. 할머니는 나를 슬쩍 밀치며 광수 할머니 쪽으로 갔다.

“아이고, 우리 형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시까? 고정하시겨.”

“자네 손녀딸이 우리 귀한 손주를 얼마나 뺏는지 온몸이 멍투성이야. 그래서 내가 좀 혼내려고 왔더니 이젠 이 집 며느리까지 이 늙은이한테 눈을 부라리네.”

그때였다. 광수가 혈떡거리며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다.

“아이 씨. 할머니 뭐 해? 여기서.”

“뭐 하긴, 우리 귀한 손자 때린 년 혼내러 왔지.”

광수가 발을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애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할머니, 정말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저, 저, 저 새끼 하는 말 좀 봐.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누구냐, 신부님네 아들, 우준지, 지군지 하는 애가 그러더만. 유정이 기집년이 뺏다고.”

“어유, 진짜. 내가 잘못된 거라고! 창피하게 왜 그래?”

광수는 목이 갈라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제 할머니 곁으로 오더니 팔을 잡아끌었다.

“아유, 할머니가 이러면 쪽팔린다고.”

“이 병신 같은 놈, 이러니 여자애한테 당하지. 너 유정이 이년, 또 한 번 우리 손자한테 손대 봐.”

광수 할머니는 광수 손에 끌려가면서도 내내 구시렁거렸다. 광수와 광수 할머니가 내려가자 할머니가 마루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금세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하는 꾸중인지 혼잣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작게 중얼거리기만 했다.

“승질머리하고는. 곰 새끼처럼 내내 참다 한 번 터지면 물불 못 가리니…….”

그 뒤로 광수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자기가 먼저 잘못

해 놓고는 제 할머니 앞에서 괜히 내 편을 드는 척하는 게 더 패썸했다. 나는 이번만큼은 절대 광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저녁 먹고 숙제를 하고 있는데 용민이가 슬그머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누나.”

“왜, 받아쓰기 해야 돼?”

“아니.”

용민이가 내 눈치를 보다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광수 형아가 이거 주래.”

편지였다.

“누나 꼭 봐야 해. 형이 누나가 보는지 안 보는지 꼭 보고 오랬어. 누나가 안 보면 내 책임이래.”

나는 마지못해 편지지를 펼쳤다.

윤유정, 미안해.

나쁜 뜻으로 놀린 거 아니야. 미안해.

진심 그냥 장난이었어.

나는 니가 시무룩하게 있는 걸 보면 장난이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야. 정말이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런 것도 용서를 빌게.

요새 우리 아빠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래. 이해해.

나는 널 무시하지 않아.

절대로. naver

나는 이 세상에서 니가 절루 이빠. 진짜야.

미안해. 정말 나쁜 뜻 아니었어.

내 말을 믿어 조.

너의 친구 광수

정말 역겹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데다 맞춤법까지 엉망이다. naver라니 포털 사이트 이름은 거기다 왜 적어 놓았는지. 나는 맞춤법 틀리는 아이들이 정말 싫다. 편지지를 확 구겼다. 그러자 앞에 있던 용민이가 편지를 한 장 더 내밀었다.

“이건 뭐야?”

“광수 형아가 누나가 편지 주면 찢을 거니까 이거 꼭 다시 주래.”
다시 편지지를 찢다.

미안해 유정아.

그냥 장난이었어. 너 무시해서 놀린 거 아니야.

나는 진심 장난이었어.

그냥 너가 시무룩하지 않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진짜야.

나는 니가 기운 없는 게 싫어. 진짜야.

절대, 절대 놀린 거 아니야.

나 원래 그러잖아.

우리 할머니가 요즘 우리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괜히 너한테 더 그랬어.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 조.

너의 친구 광수

내가 가만히 있자 용민이가 물었다.

“누나 편지 또 찢을 거야?”

“왜?”

용민이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한 장 더 꺼내며 말했다.

“광수 형아가 누나가 편지지 찢을 때마다 이거 주래.”

미안해 유정아.

정말 장난이었어.

다시는 장난 안 칠게.

내가 미쳤지.

이상해. 왜 널 보면 내 맘과 다르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야, 윤용민. 너 광수 만나면, 누나가 영화 따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다고 전해. 그리고 나 이런 유치한 거 더 싫어한다고 해.”

용민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고만 있었다.

“관뉘. 내가 말할게.”

광수는 언제나 내 심기를 건드려 놓고는 장난이었다고 변명한다. 평소 같으면 용서 따위는 없지만 광수 아버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다는 말에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요즘 광수네 집이 말이 아니다. 광수네는 덕정산 아래 산등성이에 있는 목장에서 젖소를 키웠다. 목장이라고 해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강원도 어디쯤 있는 드넓은 목장은 아니고, 임야를 개간해 만든 톱밥 깔린 작은 운동장과 우사, 그리고 한 번에 네 마리의 젖을 짤 수 있는 착유실이 전부였다. 그래도 항상 이십 마리에서 삼십 마리 사이의 젖소가 있었다. 물론 그중 젖을 짤 수 있는 소는 열댓 마리 정도고 나머지는 송아지거나 새끼를 낳은 소였다. 광수네 목장은 몇 년 전 낙농업을 현대화하라는 정부와 농협의 권유에 따라 우사를 현대식으로 새로 지었다. 난방기와 환풍기를 설치하고 착유기와 냉각 시설도 최신식으로 들여놓았다. 물론 거의 다 빚이었다. 아침마다 학교 갈 무렵이면 ‘○○우유’라고 쓴 집유차가 마을로 들어왔다. 그때마다 광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우유가 1등급이라는 거지. 부럽지?”

초등학교 때는 광수네 집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 주는 재미에 목장에 자주 갔었다. 내가 보기에 어미 소의 젖통은 송아지한테 먹일 젖이 나오고도 남을 만큼 커 보였다. 어떨 때는 어미 소가 큰 젖통을 주체 못 해 찢찢매는 모습이 가여워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광수 아버지와 할머니는 송아지를 어미 소와 따로 키우며 젖병으로 우유를 먹였다. 일요일 아침, 예배 전에 광수네 농장에 가면 어미 소가 스테인리스로 된 착유기를 젖통에 끼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광수 아버지는 그렇게 젖을 짜 주어야 젖통이 아프지 않다고 했지만 난 웬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다. 광수 역시 나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송아지를 아버지 몰래 어미에게 데려다주려다 걸려 매를 맞기도 했다. 광수 아버지는 어미 소 젖 양이 너무 많아 송아지가 빨아먹다 과식을 하면 설사병에 걸릴 수 있고, 어미가 유방염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떼어 놓는 거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어미가 옆방에 있는데도 젖병을 빨아야 하는 송아지가 불쌍했다. 착유실의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과 관, 까만 고무 호스를 보면 사람들이 소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우유 먹기가 싫어졌다. 그래도 배고픈 송아지에게 커다란 송아지용 젖병을 물려 주는 일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송아지들이 젖꼭지를 어찌나 세게 빠는지 내 팔뚝이 쪽쪽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젖소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침저녁으로 젖을 짜서 우

유 회사 집유차에 옮기는 일뿐 아니라 착유실을 청소하고, 젖소에게 사료를 챙겨 먹이고, 병에 걸리지 않게 수시로 검사를 받는 일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젖소 운동장에 깔아 놓은 톱밥을 정기적으로 갈아야 하고, 우사도 자주 청소해 줘야 하고, 분노 처리장도 관리해야 했다. 우리 살문리에는 광수네만 소를 키우는 데 마을 사람들이 소똥 냄새가 난다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분노 처리장을 최신 시설로 바꾸기 전부터도 광수 아버지는 냄새나 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작은아빠는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벼짚을 다른 데 넘기지 않고 꼬박꼬박 광수네 목장으로 갖다줬다. 광수 아버지는 젖소에게 사료를 먹이면서도 겨울에는 반드시 벼짚을 같이 먹였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젖소들을, 두 번이나 생매장을 한 것이다. 광수 아버지가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던 날, 광수는 은행나무 아래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광수 아버지 역시 구제역에 걸리지도 않은 생때같은 소가 죽어 가는 것을 보다 끝내 통곡을 했다고 했다. 그날 저녁 광수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작은아빠가 목이 메어 말했다.

“자꾸만 그 소 눈망울이 떠올라 미치겠어. 그놈들이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까닭을 알기나 하느냐고. 구제역이 발생한 데서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죄다 살처분하라니. 정말 가없어서……. 세상에 인간만큼 잔인한 동물도 없을 거야.”

그렇게 소를 살처분한 뒤 몇 달이 지나 나온 젖소 보상금은 밀린 사료 외상값을 갚는 데 쓰고, 소를 사느라 빌린 대출금은 여전히 빚으로 남았다고 했다.

이 년 동안 연거푸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던 소를 산 채로 묻고 나서 광수 아버지는 목장을 비워 둔 채 낱일을 다녔다. 광수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텅 빈 착유실과 우사를 보고 운다며 풀 죽어 말했다. 광수 할머니는 당신도 돈벌이를 하겠다며 종개리에 있는 버섯 농장에 가서 낱일을 하고 주말에는 집 앞 텃밭에서 발농사를 지었다. 광수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광수 아버지였다. 구제역 파동으로 선원리의 목장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행여나 광수 아버지도 어리석은 짓을 할까 마음을 졸인다고 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마을 어귀 배나무 밭 아래 도랑 옆에 가면 봉긋하게 솟아오른 땅 위로 굴뚝처럼 관이 너댓 개 꽂혀 있는 곳이 있었다. 거기가 바로 광수네 소가 묻힌 곳이었다. 다른 면에 가면 그런 소나 돼지 무덤이 더 많았다. 나는 그 무덤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릿찌릿했다. 내가 소고기를 먹지 않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광수 할머니에게 광수는 유일한 위안이고 희망이다. 나는 이번만 광수를 용서하기로 했다.